

黃帝內經에 보이는 汗관련 敍述의 特徵에 대한 考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學教室¹ · 韓醫學古典研究所²

柳姪我^{1, 2} · 張祐彰^{1, 2} · 白裕相^{1, 2} · 丁彰炫^{1, 2}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Descriptions of the Perspiration i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Lyu Jeong-ah^{1, 2} · Jang Woo-chang^{1, 2} · Baik You-sang^{1, 2} · Jeong Chang-hyun^{1, 2} **

¹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²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Kyunghee University.

In Korean Traditional Medicine(abbreviated to K.T.M.), hyperhidrosis and anhidrosis are the targets of the medical treatment. Furthermore sweating appearance is also one of the important symptoms which explain a particular situation of the patient in K.T.M. And at 『Sanghanron(傷寒論)』 which is a traditional chief clinical bible written by Jang Gi(張機) later Han dynasty(漢代) in China made full use of the various kinds of diaphoresis[汗法] as a main medical treatment with purgation therapy[下法] and emetic therapy[吐法]. So the sweat in itself not only is the disease, but also is one of the symptoms explain a disease pattern.

This thesis inquires into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referring to sweat which is the origin of recognition to the sweat in K.T.M. Some theses similar to this research had been made progresses and already reported, but most of them have classified the contents into biology, pathology, diagnosis, treatment after the model of western medical theory. In the aspect of comparative studying with other literature and clinic practical using, we found characteristics of referring to sweat in 『Hwangjenaegyeong(黃帝內經)』. And we classify the characteristics into some categories as follows.

1. There are some terms which make a title including sweat and symbolize the characteristics, for example sweat of soul[魄汗], sweat of death[絕汗], sweat of streaming[灌汗], sweat of weakness[白汗], sweat of sleep[寢汗], sweat of bright and heat[炅汗], sweat of kidney[腎汗], sweat of escaping[濺汗], cold sweat[寒汗], sweat on the head[頭汗], hyperhidrosis[多汗], heavy sweat[大汗]. But there aren't spontaneous sweat[自汗] or sweat like a thief[盜汗] which are the normal terms referring to sweat in history of K.T.M. And there are several descriptions about sweat appearance such as sweating in half of body[汗出偏沮], sweating in the rear end and thigh and knee[汗出尻陰股膝], hyperhidrosis in the neck and aversion to wind[頸多汗惡風], hyperhidrosis in the head and face and aversion to wind[頭面多汗惡風], cannot stopping the sweating under head[頭以下汗出不可止], make a person sweat to one's feet[令汗出至足],

sweating like escaping[溼溼然汗出], sweating like soaking[汗出如浴], sweating become moist[汗出溼溼], hardly escaping sweat[汗大泄], escaping sweating[澼澼之汗], sweat moisten the pores [汗濡玄府], ceaseless sweating like pouring[汗注不休]-sweating like pouring and vexation[汗注煩心], damp with sweat[汗汗然], sweating spontaneously[汗且自出], removal of fever with sweat drying[熱去汗稀]. That can be divided into sweat region and sweat form.

2. There are detailed explanations of the principle of perspirations caused by hot weather, hot food, hard working and meeting damp pathogen.
3. There are some explanations of the principle of removing fever due to the excessive heat from internal and external body through sweating by replenishing the body fluid. And many descriptions about overcoming the febrile disease by dropping temperature through sweating and many diaphoresis for curing.
4. There are some descriptions about five Jang organs perspirations and attachment of five mucous body fluid to five Jang organs.
5. There are pathogenic progresses after sweating affected by the Six Atmospheric Influences and water. And detailed explanations of disease mechanism a sweat leading to another disease.
6. There are descriptions about various sweat absent situations.

Key Words : perspiration, Hwangjenaegyong(黃帝內經), diaphoresis

I. 序論

韓醫學에서는 땀이 많거나 적은 것을 疾病으로 인식하여 治療 對象으로 삼을 뿐 아니라, 主訴症이 땀과 관련된 것이 아닐 경우에도 땀의 樣相을 매우 중요시하여 主訴症과 땀의 樣相을 함께 기록하고 그에 따른 治法과 治方을 제시한 사례가 많다. 後漢代 張機에 의해 著述되어 1700~1800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상에 활용되고 있는 『傷寒論』에는 發熱, 惡寒, 大小便, 脈象, 顏色 등과 함께 汗出樣相이 疾病을 설명하는 주된 症狀로 서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땀을 내는 汗法이 吐法, 下法과

함께 疾病을 치료하는 주요한 治法으로 精巧하게 구사되어 있다. 그러므로 땀은 그 자체로 疾病이기도 하고, 혹은 어떠한 疾病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症狀이기도 하고, 또한 疾病을 치료하는 治法이 되기도 한다.

반면 西洋醫學에서는 땀을 體溫을 떨어뜨리거나 체내 代謝產物을 배출하기 위해 體表에 넓게 분포된 汗腺에서 분비하는 老廢物로 인식하고 있으며, 땀 자체가 疾病이 되는 多汗症의 경우에 수술요법으로 汗腺을 제거하거나 막는 처치를 한다. 그러나 汗腺 제거 수술 후 다른 부위에서 땀이 나거나, 수술부위의 피부에 乾燥症이나 皮膚病이 생기는 부작용이 있다. 또한, 땀이 나지 않는 症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처법이 없다. 이는 韓醫學에서 땀을 疾病을 파악하는 症狀과 疾病을 치료하는 治法으로 적극 개발·활용하여, 체내 환경을 조절함으로써 자유자재로 땀을 나거나 그치게 한 것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땀에 관해서는 西洋醫學에서 보다 韓醫學에서 더욱 깊고 다양한 인식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 이 논문은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의 2단계 Brain Korea 21 事業의 지원을 받아 研究되었으며, 2009년 11월 5일 2009' 대한한의학회 학원전학회 정기학술대회에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丁彰炫.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E-mail: jeongch@khu.ac.kr. Tel: 02-961-0337
접수일(2010년 2월 20일), 수정일(2010년 3월 15일),
게재확정일(2010년 3월 18일)

現代人の 疾病 認識과 治療에 西洋醫學에 비해 더욱 발달된 韓醫學의 眞에 대한 認識과 治法을 적극 활용해야 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本稿는 韓醫學의 眞에 대한 認識의 淵源이라 할 수 있는 『黃帝內經』에 보이는 眞 관련 認識을 考察한 것이다. 『黃帝內經』原文에서 ‘汗’字가 보이는 敘述을 찾아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그 내용을 몇 가지로 분류하고, 『內經』의 汗 관련 서술의 特徵을 귀납하는 方法으로 연구하였다. 『內經』에 보이는 汗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는 作業은 이미 여러 번 행해져서, 「黃帝內經에서의 汗에 대한 考察」¹⁾ 및 「《內經》汗理論의 思考」²⁾, 「淺析《內經》從臟腑論汗」³⁾, 「《內經》關於汗出的論述」⁴⁾, 「解讀《內經》之“汗”」⁵⁾ 등의 論文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 중 「黃帝內經에서의 汗에 대한 考察」 및 「《內經》汗理論의 思考」, 「解讀《內經》之“汗”」에서는 서양의학의 理論 틀에 따라 汗에 관한 내용을 生理, 病理, 診斷, 治療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內經》關於汗出的論述」에서는 크게 ‘汗出機制’와 ‘汗出的臨床應用’으로 분류하였으며, 「解讀《內經》之“汗”」의 일부와 「淺析《內經》從臟腑論汗」에서는 ‘汗出機制’를 五臟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이는 모두 汗의 生理 및 病理를 通史의 으로 파악코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論者는 『內經』의 汗 관련 敘述에서 위 論文들에 언급되지 않은 몇 가지 중요한 特徵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다른 文獻과의 비교 연구 및 실제 臨床에서의 활용을 목적으로 『內經』의 汗 관련 敘述의 特徵을 아래의 몇 가지로 歸納하였다.

II. 本論

- 1) 金翰成, 洪茂昌. 黃帝內經에서의 汗에 대한 考察. 東醫生理學會誌. 1992. 7(1). pp.163-172.
- 2) 牛菲. 《內經》汗理論의 思考. 雲南中醫學院學報. 2008. 9(4). pp.10-12.
- 3) 程紹民, 喻松仁. 淺析《內經》從臟腑論汗. 上海中醫藥雜誌. 2008. 42(11). pp.62-63.
- 4) 李海英. 《內經》關於汗出的論述. 河北中醫. 2008. 30(2). p.188.
- 5) 牛菲. 解讀《內經》之“汗”. 吉林中醫藥. 2008. 28(7). pp.477-479.

1. 汗에 特定한 이름을 붙이고, 汗出樣相을 다양하게 敘述함.

1) 特定한 이름을 붙인 경우

『黃帝內經』에는 魄汗, 絕汗, 灌汗, 白汗, 寢汗, 炆汗 등으로 汗에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자주 보인다.

魄汗은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魄汗未盡, 形弱而氣燥, 穴俞以閉, 發爲風癩.(魄汗이 다하지 못하면 形이 약해지고 氣가 쇠하며 穴俞가 닫히니 發病하여 風癩이 됩니다.)⁶⁾

라고 하였으며, 「素問陰陽別論」에서

陰爭於內, 陽擾於外, 魄汗未藏, 四逆而起, 起則熏肺, 使人喘鳴.(陰이 안에서 다투고 陽이 밖에서 어지럽혀 魄汗이 갈무리되지 못하면 四逆이 일어나니, (사역이) 일어난 즉 肺를 熏蒸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숨을 헐떡이고 소리 나게 합니다.)⁷⁾

라고 하였다. 이 밖에 『素問通評虛實論』⁸⁾과 『素問至真要大論』⁹⁾에도 보인다.

魄은 五臟 중 肺와 관련되며, 「陰陽別論」에서 魄汗이 갈무리되지 못하면 肺를 熏蒸하여 喘鳴이 되게 한다고 했으므로 肺에서 나오는 汗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魄汗未盡’에 대하여 朴贊國은

魄은 肺의 神이니, 眞은 肺의 宣發작용을 받아

- 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6.
- 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1.
- 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09. “暴癱筋脈, 隨分而痛, 魄汗不盡, 胞氣不足, 治在經俞.”
- 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00. “少陰在泉, 客勝則腰痛尻股膝脾膈胎足病, 昏熱以酸, 附腫不能久立, 溲便變, 主勝則厥氣上行, 心痛發熱, 鬲中衆痺皆作, 發於肢脇, 魄汗不藏, 四逆而起.”

피부를 통하여 나가기 때문에 魄汗이라 부르기도 한다. 未盡이라 함은 肺의 神인 魄이 그 작용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여 땀이 흠뻑 나지 못하고 陽氣가 수렴되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¹⁰⁾

라고 하였다. 따라서 魄汗은 汗이 肺의 宣發作用으로 나가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라 할 수 있다.

絶汗은 『素問·診要經終論』에서

岐伯曰, 太陽之脈, 其終也戴眼反折痲痺, 其色白, 絶汗乃出, 出則死矣.(岐伯이 말씀하시길, 太陽의 脈이 끊어짐에는 눈이 뒤집히고 몸이 꺾이며 筋이 늘어지거나 오그라들며 顔色이 희고 絶汗이 이에 나오니 (絶汗이) 나오면 곧 죽습니다.)¹¹⁾

라고 하였으며, 『靈樞·終始』에는

太陽之脈, 其終也, 戴眼, 反折, 痲痺, 其色白, 絶皮乃絶汗, 絶汗則終矣.(太陽의 脈이 끊어짐에는, 눈이 뒤집히고 몸이 꺾이며 筋이 늘어지거나 오그라들며 顔色이 희고 皮膚가 끊어져서 이에 絶汗이 나오니 絶汗이 나오면 곧 마칩니다.)¹²⁾

라고 하였으며, 『靈樞·經脈』에서는

六陽氣絶, 則陰與陽相離, 離則腠理發泄, 絶汗乃出, 故旦占夕死, 夕占旦死.(여섯 陽經의 氣가 끊어진 즉 陰陽이 서로 離訣하며 (陰陽이) 離訣한 즉 腠理가 열리고 새어 絶汗이 이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아침에 (絶汗이 나오면) 저녁에 죽을 것을 알며 저녁에 (絶汗이 나오면) 아침에 죽을 것입니다.)¹³⁾

라고 하였다.

이상 絶汗에 관한 文章을 종합하여 고찰해보면, 絶汗은 太陽脈을 비롯한 여섯 陽經의 氣가 모두 끊어져서 陰陽氣의 결합이 떨어진 후 腠理가 벌어지므로 皮毛에 남아있던 마지막 津이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속에서 津液이 蒸發되어 나오는 汗이 아니므로 계속 나오지 않는다.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죽을 것을 안다고 한 것은 絶汗이 나오면 臨終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絶汗의 구체적인 樣相에 대하여 『難經』에

六陽氣俱絶者, 則陰與陽相離. 陰陽相離則腠理泄, 絶汗乃出, 大如貫珠, 轉出不流, 卽氣先死. 旦占夕死, 夕占旦死.(여섯 陽經의 氣가 모두 끊어진 것은 곧 陰과 陽이 서로 離訣한 것이다. 陰陽이 서로 離訣하면 곧 腠理가 새어 絶汗이 이에 나온다. 크기가 펄 수 있는 구슬과 같아 굴러 나오나 흐르지 아니하니 곧 氣가 먼저 끊어진 것으로, 아침에 저녁에 죽을 것을 알고 저녁에 아침에 죽을 것을 안다.)¹⁴⁾

라고 한 것이 보인다. 보통의 汗은 人體의 陰陽氣가 습하여 津液이 蒸發되어 나오는 것인데 비해 絶汗은 陰陽이 離訣한 후 皮毛에 남아있던 津이 腠理가 새는 틈으로 떨어져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구슬처럼 맺혀서 흐르지 않는 樣相을 보인다.

그러므로 絶汗은 臨終時에 나오는 구슬처럼 맺혀 흐르지 않는 汗임을 알 수 있다. 또한 ‘絶’은 生命의 氣運이 끊긴 것과, 흐르지 않고 끊어지는 汗의 樣相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灌汗은 『素問·脈要精微論』에서

肺脈搏堅而長, 當病唾血, 其奕而散者, 當病灌汗, 至今不復散發也.(肺脈이 치고 단단하면서 길면 응당 피 섞인 가래를 뱉는 病을 앓으며, (脈이) 가 날프고 흩어지는 자는 응당 灌汗을 앓아서 다시는 發散하지 못하게 됩니다.)¹⁵⁾

14) 윤창열,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珥출판사. 2007. p.494.

1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

10)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44.

1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54.

1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73.

1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83.

라고 하였다. 朴贊國은 ‘當病灌汗’에 대하여

灌汗은 줄줄 흘리는 땀을 말한다. 肺에서 宣布作用을 하는 것은 또한 肺에서 수렴작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호스로 물을 뿜어낼 때 호스의 끝을 눌러서 막으면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뿜어 나가지만 끝을 누르지 않으면 호스 안에 압력이 차지 않아서 물이 바로 앞에 떨어진다. 이처럼 肺에서 기운을 收斂시켜야 땀이 정상적으로 나는데, 肺에서 收斂시키는 기능이 망가져서 줄줄 새어나가는 땀을 灌汗이라고 한다.¹⁶⁾

라고 하였으며, 『類經』에서는

汗出如水, 故云灌汗.(땀이 물 흐르듯 나므로 灌汗이라 한다.)¹⁷⁾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灌汗은 汗이 그치지 않고 물 흐르듯 줄줄 새어나가는 것을 取象하여 붙인 이름임을 알 수 있다.

한편, 白汗은 『素問經脈別論』에서

一陰至, 厥陰之治也, 眞虛痛心, 厥氣留薄, 發爲白汗, 調食和藥, 治在下俞.(一陰이 이르는 것은 厥陰이 다스리는 것이니, 眞氣가 虛하여 가슴이 조이고 厥氣가 머물러 있다가 발하면 白汗이 나니, 음식을 골고루 먹이며 여러 가지 藥味를 조합하고 하부의 수혈을 치료해야 합니다.)¹⁸⁾

라고 하였는데, 白汗에 대하여는 魄汗과 같게 보는 해석과 自汗을 잘못 쓴 것이라는 해석이 있다. 『東洋醫學大辭典』¹⁹⁾에 따르면 馬蒔, 張志聰, 吳崑, 任應秋

院 出版部. 1981. p.58.

16)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322.

17) 東洋醫學大辭典 編纂委員會. 東洋醫學大辭典 1.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9. p.525.

1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86.

19) 東洋醫學大辭典 編纂委員會. 東洋醫學大辭典 4. 서울. 慶

등은 肺나 體表에서 나오는 汗이라는 의미로 魄汗과 같게 보았으며, 郭霽春과 胡天雄은 自汗과 같게 보았다. 朴贊國²⁰⁾은 ‘發爲白汗’에 대하여 陰陽이 모두 虛하여 기운 없이 식은땀을 계속 흘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魄汗은 汗이 肺의 宣發작용을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魄汗未盡이나 魄汗未藏이 문제가 되고 魄汗 자체에는 病證의 의미가 없다. 그러나 白汗은 『經脈別論』의 文意로 볼 때 그 자체로 病證이 된다. 또한 厥陰之治, 眞虛, 厥氣 등의 病證과 調食和藥의 治法을 보았을 때 虛症의 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內經』에는 汗且自出이라 한 汗出樣相과 就寢 중 나는 땀이라는 뜻의 寢汗은 있으나 自汗이나 盜汗의 용어는 보이지 않으므로, 自汗을 잘못 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白汗은 眞氣가 虛하여 나오는 식은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寢汗은 『素問藏氣法時論』²¹⁾과 『素問氣交變大論』²²⁾, 『素問六元正紀大論』²³⁾에 보인다. 腎病이나 太陽所至와 함께 나오며 寢이 잠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寢汗은 睡眠 중 나오는 汗임을 알 수 있다.

炅汗은 『素問長刺節論』에서

病風且寒且熱, 炅汗出, 一日數過, 先刺諸分理絡脈, 汗出且寒且熱, 三日一刺, 百日而已.(風病을 앓아 추웠다 더웠다 하며 炅汗이 나오는 것을 하루에

熙大學校 出版局. 1999. p.63.

20)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441.

2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89. “腎病者, 腹大脛腫, 喘欬身重, 寢汗出憎風. 虛則胸中痛, 大腹小腹痛, 清厥意不樂, 取其經, 少陰太陽血者.”

2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47. “歲水太過, 寒氣流行, 邪害心火. 民病身熱煩心, 躁悸, 陰厥, 上下中寒, 譫妄心痛, 寒氣早至, 上應辰星. 甚則腹大脛腫, 喘欬, 寢汗出, 憎風, 大雨至, 埃霧, 朦鬱, 上應鎮星.”

2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76. “厥陰所至爲痲痺, 少陰所至爲悲妄衄衄, 太陰所至爲中滿霍亂吐下, 少陽所至爲喉痺耳鳴嘔涌, 陽明所至爲皴揭, 太陽所至爲寢汗瘧, 病之常也.”

여러 번 하면, 먼저 모든 나누어진 腠理의 絡脈을 刺합니다. 汗出하고도 추웠다 더웠다 하면 삼 일에 한 번 刺하는데 백 일이면 낫습니다.)²⁴⁾

라고 하였는데, 朴贊國은 炻에 대하여

熱은 스스로 熱을 생산하여 熱氣가 밖으로 퍼지는 것이고, 炻은 그냥 따듯함을 느끼거나 밖으로부터 熱을 받아서 더운 것을 말한다.²⁵⁾

라고 하였다. ‘炻’字에는 陽을 상징하는 ‘日’字와 ‘火’字가 함께 들어 있으므로 陽氣가 두 배가 되어 무척 밝고 무척 더운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炻汗은 몸이 붉어지고 熱이 나면서 汗出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腎汗에 대하여는 『素問·水熱穴論』에

勇而勞甚, 則腎汗出, 腎汗出逢於風, 內不得入於藏腑, 外不得越於皮膚, 客於玄府, 行於皮裏, 傳爲附腫, 本之於腎, 名曰風水. 所謂玄府者, 汗空也.(勇하여 수고로움이 심하면 腎汗이 나온다. 腎汗이 나오고 바람을 맞으면 안으로 臟腑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으로 皮膚로 넘어가지 못하여 玄府에 客하여 皮膚의 안으로 행하니 傳하여 附腫이 된다. 腎에 근본을 두므로 風水라 하며, 玄府는 땀구멍이다.)²⁶⁾

라고 하였다. 이 文章에서는 風水의 機轉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朴贊國은

과로하여 精氣의 異化作用이 지나쳐서 元陰元陽의 氣壓이 떨어지면 元陰元陽이 유지하고 있는 氣場이 무너지면서 外風이 들어오게 된다.²⁷⁾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腎汗은 능력 이상으로 힘을 써서 腎氣가 動하여 나온 汗이라 할 수 있다.

漉汗에 대하여는 『靈樞·五變』에서

黃帝曰, 人之善病風厥漉汗者, 何以候之. 少俞答曰, 肉不堅, 腠理疎, 則善病風. 黃帝曰, 何以候肉之不堅也. 少俞答曰, 膈肉不堅, 而無分理, 理者蠹理, 蠹理而皮不緻者, 腠理疎, 此言其渾然者.(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風厥과 漉汗을 잘 앓는 자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少俞 답하여 말하기를, 肉이 단단하지 않고 腠理가 성글면 風病을 잘 앓습니다. 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肉이 단단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까? 少俞 답하여 말하기를, 오금의 肉이 단단하지 않으며 살결이 나누어지지 않았으며, 나누어졌더라도 살결이 거칩니다. 살결이 거칠면서 皮膚가 치밀하지 않은 것이 腠理가 성긴 것이니, 이는 그 渾然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²⁸⁾

라고 하였다. 「五變」의 文意와 체 같은 것으로 거론하는 漉의 뜻으로 보아, 漉汗은 腠理가 성글어서 새어나오는 汗이라 할 수 있다.

寒汗에 대하여는 『靈樞·熱病』에서

熱病先身濇倚而熱, 煩惋, 乾脣口噙, 取之皮, 以第一鍼, 五十九, 膚脹口乾, 寒汗出, 索脈於心, 不得, 索之水, 水者, 腎也.(熱病에 먼저 몸이 뻘뻘하게 처지면서 發熱하고 번거롭고 잊어버리며 입술과 입과 목구멍이 마르면 皮를 刺하되 第一鍼으로 五十九刺하면 膚가 팽창하고 입이 마르면서 寒汗이 나옵니다. 心이 주하는 脈에서 (원인을) 찾되, 얻지 못하면 水에서 찾아야 하니 水는 腎입니다.)²⁹⁾

라고 하였다. 文意로 볼 때, 寒汗은 腎臟 水氣의 작

2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95.

25)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887.

2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13.

27)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954.

2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10.

2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38.

용으로 나오는 차가운 汗을 의미한다.

이상 『黃帝內經』에서 汗에 이름을 붙여 敍述한 例와 그 의미를 정리하여 보면, 汗이 肺의 宣發作用으로 나감을 의미하는 魄汗, 臨終時에 나오는 구슬처럼 맺혀 흐르지 않는 絕汗, 汗이 그치지 않고 물 흐르듯 줄줄 새어나가는 것을 取象한 灌汗, 眞氣가 虛하여 나오는 식은땀인 白汗, 睡眠 중 나오는 汗인 寢汗, 몸이 붉어지고 熱이 나면서 汗出하는 炆汗, 능력 이상으로 힘을 써서 腎氣가 動하여 나온 腎汗, 腠理가 성글어서 새어나오는 漉汗, 腎臟 水氣의 작용으로 나오는 차가운 汗인 寒汗 등을 볼 수 있었다. 多汗 및 大汗도 여러 번 보이거나 이는 特定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기 보다는, 汗이 많이 나온다는 보통의 의미로 보아 아래 ‘汗出樣相에 대한 다양한 敍述’에 포함하였다. 특히 後代에 汗에 관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름이 된 自汗 및 盜汗의 意味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는 白汗, 灌汗, 漉汗 및 寢汗이 나오나 自汗과 盜汗의 용어 자체는 보이지 않았다.

2) 汗出樣相에 대한 다양한 敍述

『黃帝內經』에는 汗出樣相을 다양하게 표현한 敍述이 많이 보인다. 이를 크게 汗出 부위에 관한 것과 汗出 모양에 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汗出 부위에 대한 敍述로는 『素問生氣通天論』의 ‘汗出偏沮’³⁰⁾, 『素問藏氣法時論』의 ‘汗出尻陰股膝’³¹⁾, 『素問風論』의 ‘頸多汗惡風’³²⁾과 ‘頭面多汗惡風’³³⁾ 및 ‘身汗’, 『靈樞邪氣藏府病形』의 ‘頭以下

汗出不可止’³⁴⁾, 『靈樞癰疽』의 ‘汗出至足’³⁵⁾ 및 ‘令汗出至足’³⁶⁾ 등이 보인다. 이 중 『素問風論』의 身汗은 原文에서

漏風之狀, 或多汗, 常不可單衣, 食則汗出, 甚則身汗, 喘息惡風, 衣常濡, 口乾善渴, 不能勞事.(漏風の 모양은 혹 汗이 많으나 항상 흘렀을 입지 못하니, 음식을 먹으면 汗出하는데 심하면 몸에 汗出하며 숨이 가쁘고 바람을 싫어하며 옷이 항상 젖어있으며 입이 마르고 갈증이 잘 나서 힘든 일을 하지 못합니다.)³⁷⁾

라고 하였는데, 飲食을 먹으면 보통 面部에 汗出하는 정도를 지나 體幹과 四肢까지 全身汗出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靈樞邪氣藏府病形』³⁸⁾에 飲食을 먹으면 面部에 汗出하여 腠理가 열리므로 邪氣가 面部의 각 經絡을 따라 들어온다는 설명이 보인다. 그러므로 「風論」의 食則汗出은 面汗出으로 보고 甚則身汗은 全身汗出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汗出偏沮’는 左半身이나 右半身에만 땀이 나는 것, ‘汗出尻陰股膝’는 콩무늬와 넓적다리 안쪽과 무릎에 땀이 나는 것, ‘頸多汗惡風’과 ‘頭面多汗惡風’은 각각 목에 땀나는 것과 머리 및 얼굴에 땀이 나는

3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6. “陽氣者, 大怒則形氣絕, 而血菀於上, 使人薄厥. 有傷於筋縱, 其若不容, 汗出偏沮, 使人偏枯.”

3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89. “肺病者, 喘欬逆氣, 肩背痛, 汗出尻陰股膝, 脾膈胛足皆痛. 虛則少氣不能報息, 耳聾啞乾. 取其經, 太陰足太陽之外, 厥陰內血者.”

3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58. “胃風之狀, 頸多汗惡風, 食飲不下, 鬲塞不通, 腹善滿, 失衣則腹脹, 食寒則泄, 診形瘦而腹大.”

3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58. “首風之狀, 頭面多汗惡風, 當先風一日則病甚, 頭痛不可以出內, 至其風日則病少愈.”

3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8. “肺脈急甚爲癰疾, 微急爲閉寒熱, 怠惰, 欬唾血, 引腰背, 若鼻息肉不通, 緩甚爲多汗, 微緩爲痿癱偏風, 頭以下汗出不可止.”

3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45. “發於肩及臑, 名曰癰癧, 其狀赤黑, 急治之, 此令人汗出至足, 不害五藏, 癰發四五日, 逞熇之.”

3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46. “發於臑, 名曰敗疵. 敗疵者, 女子之病也, 灸之, 其病大癰膿, 治之, 其中乃有生肉, 大如赤小豆, 剉葶藶草根各一升, 以水一斗六升煮之, 竭爲取三升, 則強飲厚衣, 坐於釜上, 令汗出至足, 已.”

3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58.

3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6. “岐伯曰, 諸陽之會, 皆在於面. 中人也方乘虛時及新用力, 若飲食汗出, 腠理開而中於邪. 中於面, 則下陽明. 中於項, 則下太陽. 中於頰, 則下少陽. 其中於膺背兩脇, 亦中其經.”

것, '頭以下汗出不可止'는 머리를 제외한 體幹과四肢에 땀이 나는 것, '汗出至足' 및 '令汗出至足'은 땀이 잘 나지 않는 下體의 발까지 땀이 나는 것을 말한다.

汗出 모양에 관한 敍述로는 『素問·平人氣象論』³⁹⁾, 『素問·瘧論』⁴⁰⁾, 『素問·風論』⁴¹⁾, 『靈樞·邪氣藏府病形』⁴²⁾ 등에 나오는 多汗과 『素問·刺熱論』⁴³⁾에 나오는

3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66. "尺滿脈滑, 謂之多汗. 尺寒脈細, 謂之後泄. 脈尺雖常熱者, 謂之熱中."

4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32. "帝曰, 論言夏傷於暑, 秋必病瘧, 今瘧不必應者, 何也. 岐伯曰, 此應四時者也. 其病異形者, 反四時也. 其以秋病者寒甚, 以冬病者寒不甚, 以春病者惡風, 以夏病者多汗."

4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32. pp.157-158. "帝曰, 五藏風之形狀不同者何. 願聞其診, 及其病能. 岐伯曰, 肺風之狀, 多汗惡風, 色然然白, 時欬短氣, 晝日則差, 暮則甚, 診在眉上, 其色白. 心風之狀, 多汗惡風, 焦絕善怒嘔, 赤色, 病甚則言不可快, 診在口, 其色赤. 肝風之狀, 多汗惡風, 善悲, 色微蒼, 噓乾善怒, 時憎女子, 診在目下, 其色青. 脾風之狀, 多汗惡風, 身體怠惰, 四支不欲動, 色薄微黃, 不嗜食, 診在鼻上, 其色黃. 腎風之狀, 多汗惡風, 面龐然浮腫, 脊痛不能正立, 其色皯, 隱曲不利, 診在肌上, 其色黑. 胃風之狀, 頸多汗惡風, 飲食不下, 鬲塞不通, 腹善滿, 失衣則腹脹, 食寒則泄, 診形瘦而腹大. 首風之狀, 頭面多汗惡風, 當先風一日則病甚, 頭痛不可以出內, 至其風日則病少愈. 漏風之狀, 或多汗, 常不可單衣, 食則汗出, 甚則身汗, 喘息惡風, 衣常濡, 口乾善渴, 不能勞事, 泄風之狀, 多汗, 汗出泄衣上, 口中乾上漬, 其風不能勞事, 身體盡痛則寒. 帝曰, 善."

4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8. "肺脈急甚爲癰疾, 微急爲閉寒熱, 怠惰, 欬唾血, 引腰背, 若鼻息肉不通. 緩甚爲多汗, 微緩爲痿痺偏風, 頭以下汗出不可止. 大甚爲癭腫, 微大爲肺癭引胸背, 起惡日光. 小甚爲泄, 微小爲消瘰, 滑甚爲息膺上氣, 微滑爲上下出血. 瀉甚爲鼠瘦, 微瀉爲鼠瘦, 在頸支腋之間, 下不勝其上, 其應善痿矣."

4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19. "肝熱病者, 小便先黃, 腹痛多臥身熱, 熱爭, 則狂言及驚, 脇滿痛, 手足躁, 不得安臥, 庚辛甚, 甲乙大汗, 氣逆則庚辛死, 刺足厥陰少陽, 其逆則頭痛員員, 脈引頭項也. 心熱病者, 先不樂, 數日乃熱, 熱爭則卒心痛, 煩悶善嘔, 頭面赤無汗, 壬癸甚, 丙丁大汗, 氣逆則壬癸死, 刺手少陰太陽. 脾熱病者, 先頭重煩痛, 煩心顏青, 欲嘔身熱, 熱爭則腰痛不可用俛仰, 腹滿泄, 兩頰痛, 甲乙甚, 戊己大汗, 氣逆則甲乙死, 刺足太陰陽明. 肺熱病者, 先漸然厥, 起毫毛惡風寒, 舌上黃身熱. 熱爭則喘欬, 痛走胸膺背, 不得大息, 頭痛不堪, 汗出而寒, 丙丁甚, 庚辛大汗, 氣逆則丙丁死, 刺手太陰陽明, 出血如大豆, 立已. 腎熱病者, 先腰痛骨痠, 苦渴數飲, 身熱. 熱爭則項痛而強, 齋寒且痠, 足下熱, 不欲言,

大汗이 가장 많이 보이는데, 이는 모두 汗出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 외에 『素問·刺腰痛』의 '深溲然汗出'⁴⁴⁾, 『素問·病能論』의 '汗出如浴'⁴⁵⁾, 『素問·六元正紀大論』의 '汗濡玄府'⁴⁶⁾, 『靈樞·寒熱病』의 '汗注不休'⁴⁷⁾ 및 '汗注煩心'⁴⁸⁾, 『靈樞·決氣』의 '汗出溱溱'⁴⁹⁾ 및 '汗大泄'⁵⁰⁾, 『靈樞·逆順』의 '澼澼之汗'⁵¹⁾ 등으로 땀이 나는 모양을 다양하게 敍述하였다. 한편 『靈樞·熱病』의 '汗且自出'⁵²⁾은 熱이 내리면서 汗出하는 것을 敍述하였으며, 『靈樞·陰陽二十五人』의 '汗汗

其逆則項痛員員澼澼然. 戊己甚, 壬癸大汗, 氣逆則戊己死, 刺足少陰太陽, 諸汗者, 至其所勝日, 汗出也. 肝熱病者, 左頰先赤, 心熱病者, 顏先赤, 脾熱病者, 鼻先赤, 肺熱病者, 右頰先赤, 腎熱病者, 頤先赤. 病雖未發, 見赤色者刺之, 名曰治未病. 熱病從部所起者, 至期而已, 其刺之反者, 三周而已, 重逆則死. 諸當汗者, 至其所勝日, 汗大出也. 諸治熱病, 以飲之寒水, 乃刺之, 必寒衣之, 居止寒處, 身寒而止也."

4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53. "會陰之脈, 令人腰痛, 痛上溼溲然汗出, 汗乾令人欲飲, 飲已欲走, 刺直陽之脈上三病, 在躡上郤下五寸橫居, 視其盛者出血."

4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74. "帝曰, 善. 有病身熱解墮, 汗出如浴, 惡風少氣, 此爲何病. 岐伯曰, 病名曰酒風."

4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74. "火鬱之發, 太虛腫翳, 大明不彰, 炎火行, 大暑至, 山澤燔燎, 材木流津, 廣廈騰煙, 土浮霜鹵, 止水乃滅, 蔓草焦黃, 風行惑言, 濕化乃後. 故民病少氣, 瘡瘍腫腫, 脇腹胸背面首, 四支煩憤, 臃脹痲痺, 嘔逆瘧瘵, 骨痛, 節乃有動, 注下溫瘧, 腹中暴痛, 血溢流注, 精液乃少, 目赤心熱, 甚則昏閤懊懷, 善暴死. 刻終大溫, 汗濡玄府, 其乃發也."

4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30. "骨寒熱者, 病無所安, 汗注不休, 齒未槁, 取其少陰於陰股之絡. 齒已槁, 死不治, 骨厥亦然."

4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30. "骨瘈, 舉筋不用而痛, 汗注煩心. 取三陰之經補之."

4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68. "何謂津. 岐伯曰,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

5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68. "津脫者, 腠理開, 汗大泄."

5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44. "黃帝曰, 候之奈何. 伯高曰, 兵法曰, 無迎逢逢之氣, 無擊堂堂之陣. 刺法曰, 無刺焯焯之熱, 無刺澼澼之汗, 無刺渾渾之脈, 無刺病與脈相逆者."

5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38. "熱病七日八日, 脈口動, 喘而短者, 急刺之, 汗且自出, 淺刺手大指間."

然'53)은 땀이 나서 축축한 양상을 묘사하였고, 『靈樞刺節眞邪』의 '熱去汗穢'54)은 땀이 마르면서 熱이 제거되는 양상을 敍述하였다.

2. 汗의 原理에 대한 자세한 說明이 보인다.

『內經』에는 우리 몸에서 汗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온다. 이를 아래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汗은 우리 몸에 있어서 자연계의 '비'와 같은 것이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

以天地爲之陰陽，陽之汗，以天地之雨名之，陽之氣，以天地之疾風名之。暴氣象雷，逆氣象陽。故治不法天之紀，不用地之理，則災害至矣。55)

라고 하였으며, 朴贊國은 이를

天地의 氣가 인체에 들어와서 陰하고 陽하여 陰陽의 變化가 일어나니, 陽인 땀은 天地의 雨氣로 이름 할 수 있을 것이요, 陽인 氣는 天地의 疾風으로 이름 할 수 있을 것이요, 暴氣는 우리를 본뜬 것이요 逆氣는 내리쬐는 햇볕을 본뜬 것이니, 故로 다스림에 하늘의 버리를 본받지 않으며 땅의 이치를 쓰지 않는다면 재앙과 피해에 이를 것입니다.56)

5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75. "水形之人, 比於上羽, 似於黑帝. 其爲人, 黑色面不平, 大頭廉頤, 小肩, 大腹, 動手足, 發行搖身, 下尻長背, 延延然, 不敬畏, 善欺給人戮死, 能秋冬, 不能春夏, 春夏感而病生, 足少陰汗汗然."

5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15. "岐伯曰, 取之於其天府大杼三痛, 又刺中膻, 以去其熱, 補手足太陰, 以去其汗, 熱去汗穢, 疾於徹衣."

5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5.

56)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라고 해석하였다.

날씨가 덥거나, 더운 곳에 있거나, 運動이나 勞動을 힘들게 하면 體內的 環境도 더워진다. 이에 自然에서 河川이나 바다의 물이 증발되어 하늘로 올라가듯이, 體內的 津液도 증발되어 人體의 가장 表層인 皮膚 언저리로 올라온다고 생각할 수 있다. 自然에서 蒸發되어 하늘로 올라간 수증기는 구름이나 안개로 맺혔다가 비나 눈, 이슬의 형태로 바뀌어 다시 땅으로 떨어진다. 이 과정에서 땅과 하늘의 氣運이 수증기와 비 등을 매개로 서로 교류된다. 人體에서는, 더워진 體內環境으로 蒸發되어 表層인 皮膚 언저리로 올라온 濕한 氣가 體表에서 물방울로 맺혀 皮膚 밖으로 나오게 되니 이것이 바로 汗이다.

그러므로 자연계에서 天地가 비를 매개로 陰陽交流를 하듯이 人體에서도 表裏間에 汗을 매개로 陰陽循環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 汗은 津이 나오는 것이다.

『靈樞決氣』에서

何謂津. 岐伯曰, 腠理發泄, 汗出溱溱, 是謂津. 津脫者, 腠理開, 汗大泄.(무엇을 일러 津이라 합니까? 岐伯이 가로되 腠理가 열려 泄함에 汗이 나와서 溱溱하니, 이를 일러 津이라 합니다. 津이 脫한 사람은 腠理가 열려 汗이 크게 泄합니다.)57)

라고 하였다. 이는 汗이 津으로부터 나옴을 설명한 것이다. 이에 汗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서 津이 體外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다.

3) 汗은 水穀이 우리 몸에 들어 와 代謝를 거쳐 만들어진 五液 중의 하나이다.

『靈樞五癰津液別』에

서울, 集文堂, 2005. p.129.

5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68.

黃帝問於岐伯曰, 水穀入於口, 輸於腸胃, 其液別爲五, 天寒衣薄, 則爲溺與氣, 天熱衣厚則爲汗, 悲哀氣并則爲泣, 中熱胃緩則爲唾. 邪氣內逆, 則氣爲之閉塞而不行, 不行則爲水脹, 余知其然也, 不知其何由生, 願聞其道. 岐伯曰, 水穀皆入於口, 其味有五, 各注其海. 津液各走其道, 故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 其流而不行者爲液. 天暑衣厚則腠理開, 故汗出, 寒留於分肉之間, 聚沫則爲痛.(黃帝가 岐伯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水穀이 입으로 들어가 腸胃로 운반(吸收)되니 그 液이 나뉘어 다섯 가지가 됩니다. 날이 춥고 옷이 얇으면 小便과 氣가 되며, 날이 뜨겁고 옷이 두꺼우면 汗이 되며, 슬픔(마음)에 氣가 아우르면 눈물이 되며, 중초가 뜨거워 胃가 늘어서면 침이 됩니다. 邪氣가 안에서 거스르면 氣가 閉塞되어 가지 않으며, 가지 않으면 水脹이 되니, 내가 그렇게 됨은 알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알지 못하므로 그 이치를 듣고자 합니다. 岐伯이 말씀하시기를, 水穀이 모두 입으로 들어가서 그 다섯 가지 味가 각기 그 (해당하는) 海로 흘러갑니다. 津과 液이 각기 그 길로 달리므로, 三焦에서 氣를 내어 肌肉을 따듯하게 하고 皮膚를 채우는 것은 津이 되고 (수동적으로) 흐르긴 하나 (능동적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液이 됩니다. 날이 덥고 옷이 두꺼우면 腠理가 열리므로 汗으로 出하고, 分肉의 사이에 寒이 머물러 거품으로 뭉치면 痛이 됩니다.)⁵⁸⁾

라고 하였다. 이는 汗의 재료가 되는 津液이 水穀으로부터 만들어졌음과, 날이 덥거나 옷을 두껍게 입어 腠理가 열리면 汗으로 出하고, 추위로 氣가 가지 않으면 分肉사이에 뭉쳐서 痛이 뭉을 자세히 說明한 것이다. 따라서 汗이 원천적으로 水穀으로부터 만들어짐과 날씨가 더워서 腠理가 열릴 때 나옴을 알 수 있다.

4) 辛味를 먹으면 上焦로 가서 氣와 함께 陽을 돕기 때문에 汗이 나오게 된다.

『靈樞·五味論』에서는

黃帝曰, 辛走氣, 多食之, 令人洞心, 何也. 少俞曰, 辛入於胃, 其氣走於上焦, 上焦者, 受氣而營諸陽者也, 薑韭之氣薰之, 營衛之氣, 不時受之, 久留心下, 故洞心. 辛與氣俱行, 故辛入而與汗俱出.(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辛味는 氣로 달려가 많이 먹으면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어째서입니까? 少俞가 말하기를, 辛味는 胃로 들어가 그 氣가 上焦로 달리니, 上焦는 氣를 받아 모든 陽을 運營하는 것입니다. 생강과 부추의 氣가 薰蒸하면 (上焦가 氣를) 제 때가 아닌 때에 받아 心下에 오래 머무르는 까닭에 가슴이 덩 비게 되는 것입니다. 辛味는 氣와 함께 가므로 辛味가 들어가면 汗과 함께 모두 나옵니다.)⁵⁹⁾

라고 하였다. 이는 辛味를 먹으면 上焦로 가서 氣와 함께 陽을 도와 汗出하는 原理를 자세히 說明한 것이다.

5) 더우면 皮膚가 느슨해지고 腠理가 열려서 汗出하며, 추우면 皮膚가 緻密해지고 腠理가 닫혀서 汗不出한다. 과로하면 숨이 가쁘면서 汗出하여 氣가 줄어든다.

『靈樞·刺節眞邪』에서는

陰陽者, 寒暑也, 熱則滋雨而在上, 根芟少汁, 人氣在外, 皮膚緩, 腠理開, 血氣減, 汗大泄, 皮淖澤. 寒則地凍水冰, 人氣在中, 皮膚緻, 腠理閉, 汗不出, 血氣強, 肉堅澹.(陰陽은 추위와 더위이다. 더우면 불리고 비를 내려 (氣가) 위[上]에 있게 하니, 나무 뿌리와 풀뿌리에 汁이 적어지고 사람의 氣가 바깥에 있어 皮膚가 느슨해지고 腠理가 열리며 血氣가 줄고 汗이 크게 泄하며 거죽이 촉촉하고 윤택해진다. 추우면 땅과 물이 어니, 사람의 氣가 속에 있어 피부가 緻密해지고 腠理가 닫혀 땀이

58) 洪元植 交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元 出版部. 1985. p.183.

59) 洪元植 交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元 出版部. 1985. p.246.

나가지 않으며 血氣가 強해지고 살이 단단해진다.)⁶⁰⁾

라고 하였다. 이는 날이 더우면 腠理가 열리고 汗出하며 血氣가 줄어들고 피부가 축축하고 윤택해지며, 날이 추우면 피부가 緻密해지고 腠理가 닫혀 汗不出하며 血氣가 強해지고 肌肉이 단단해지는 理致를 설명한 것이다.

『素問·學痛論』에서도

寒則腠理閉, 氣不行, 故氣收矣. 炅則腠理開, 榮衛通汗大泄, 故氣泄. 驚則心無所倚, 神無所歸, 慮無所定, 故氣亂矣. 勞則喘息汗出, 外內皆越, 故氣耗矣. 思則心有所存, 神有所歸, 正氣留而不行, 故氣結矣.(추우면 腠理가 닫혀 氣가 가지 않으므로 氣가 收斂됩니다. 더우면 腠理가 열려 榮衛가 通하고 汗이 크게 泄하므로 氣가 새어나갑니다. 놀라면 마음이 의지할 바가 없고 神이 돌아갈 바가 없으며 慮가 정해지지 못하므로 氣가 어지러워집니다. 과로하면 숨이 가쁘고 汗出하여 안팎으로 모두 넘치므로 氣가 줄어듭니다. 생각하면 마음을 둘 곳이 있으며 神이 돌아갈 곳이 있어 正氣가 머물러 가지 않으므로 氣가 맺힙니다.)⁶¹⁾

라고 하여, 날이 더우면 腠理가 열리고 榮衛가 通하므로 汗이 많이 나와서 氣가 새게 되고 힘든 일을 많이 하여도 숨이 가쁘면서 汗出하여 氣가 줄어들게 됨을 說明하였다.

6) 體內的 陽氣가 적은 데에 濕邪를 만나면 多汗하고 몸이 축축해진다.

『素問·痺論』에는

其多汗而濡者, 此其逢濕甚也. 陽氣少, 陰氣盛, 兩氣相感, 故汗出而濡也.(그 多汗하면서 (몸이) 축축

한 것은 濕邪를 심하게 맞은 것입니다. (人體의 陽氣는 적고 陰氣는 盛한데 (또 陰邪인 濕을 맞으니) 陰氣와 濕氣가 서로 感하므로 汗出하여 (몸이) 축축해집니다.)⁶²⁾

라고 하였는데, 이는 濕邪로 인하여 汗出이 많고 몸이 축축하게 되는 機轉을 說明한 것이다.

3. 汗出 후 病이 낫는 것과 發汗法에 대한 다양한 敍述

1) 內外實熱證에 津液을 補하여 發汗함

汗法은 邪氣가 體表에 있을 때와 病이 아직 臟으로 깊어 들어가지 않은 때에 쓰는 것이 大法이다. 그러나 『靈樞·刺節眞邪』에는 이러한 大法에서 조금 벗어나 陰氣不足으로 熱이 깊이 들어가고 밖에도 熱이 盛한 內外實熱證에 汗法을 쓴 경우가 나온다.

黃帝曰, 刺節言撤衣, 夫子乃言盡刺諸陽之奇輸, 未有常處也, 願卒聞之. 岐伯曰, 是陽氣有餘, 而陰氣不足, 陰氣不足則內熱, 陽氣有餘則外熱, 兩熱相搏, 熱於懷炭, 外畏綿帛近, 不可近身, 又不可近席, 腠理閉塞, 則汗不出, 舌焦唇槁, 腊乾噎燥, 飲食不讓美惡. 黃帝曰, 善. 取之奈何. 岐伯曰, 取之於其天府大杼三痛, 又刺中膺, 以去其熱, 補足手太陰, 以去其汗, 熱去汗稀, 疾於徹衣. 黃帝曰, 善.⁶³⁾

라고 하여, 內熱과 外熱이 함께 있어 高熱이 나고, 腠理가 막혀 땀이 나지 않으며, 津液이 말라 脣舌 등이 모두 마르는 상황에서 熱을 없애는 刺針과 함께 手足太陰의 津液을 補하여 땀이 나게 하면 옷을 벗기는 것보다 熱이 빨리 떨어짐을 說明하였다. 이 문장은 立場에서 일반적으로 汗法을 쓰는 表熱이 아닌, 津液이 마르고 高熱이 나는 裏實熱에 清熱治法과 함께 津液을 補하여 땀이 나게 하는 汗法을 써 볼 수

60) 洪元植 交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16.

6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46.

6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63.

63) 洪元植 交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15.

있는 文獻의 根據가 된다. 이는 다시 말하면 溫病의 氣分, 營分, 血分證에도 淸熱法과 함께 汗法을 응용해 볼 수 있다는 뜻이 된다. 또한 西洋醫學에서 熱이 나면 무조건 옷을 벗기고 얼음을 대는 처치를 하는데, 高熱일 경우에도 땀이 나게 하는 것이 얼음을 대는 것보다 熱을 떨어뜨리는 훨씬 우월한 방법임을 말해주는 敍述이다. 이는 땀이 마르면서 떨어지는 氣化 熱이 얼음을 대어서 떨어지는 傳導·對流·輻射熱 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2) 汗出 후 病이 낫는 것과 發汗의 大法

『素問生氣通天論』에는

因於暑, 汗, 煩則喘喝, 靜則多言, 體若燔炭, 汗出而散.(暑邪로 인하여는 땀이 나니, 煩熱이 나면 숨을 헐떡이고 갈증이 나며 안정되면 말이 많아지는데 몸이 불에 타는 것 같음) 땀이 나면서 풀어진다.)⁶⁴⁾

라고 하여, 暑邪로 인하여 高熱이 날 때 땀이 나면 熱이 풀어질을 敍述하였다. 또한 『素問刺熱論』⁶⁵⁾을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汗出 후 症狀이 輕減하거나 病이 낫는다는 敍述을 볼 수 있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는

故曰, 病之始起也, 可刺而已, 其盛, 可待表而已. 故因其輕而揚之, 因其重而減之, 因其衰而彰之. 形不足者, 溫之以氣, 精不足者, 補之以味. 其高者, 因而越之, 其下者, 引而竭之, 中滿者, 寫之於內, 其有邪者, 瀆形以爲汗, 其在皮者, 汗而發之, 其慄悍者, 按而收之, 其貴者, 散而寫之. 審其陰陽, 以別柔剛, 陽病治陰, 陰病治陽. 定其血氣, 各守其鄉, 血實宜決之, 氣虛宜掣引之.(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病이 처음 일어남에 刺針하여 가히 그치게 할 수 있으

며 그 (병세가) 盛함에는 衰하기를 기다려 가히 그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病勢가) 가벼운 것을 因하여는 (治法을) 날려버리고, 그 무거운 것을 因하여는 줄어들게 하며, 그 衰한 것을 因하여는 뚜렷하게 치료합니다. 形이 부족한 사람은 氣로써 따뜻하게 하고, 精이 부족한 사람은 味로써 보충하여 줍니다. 그 높은 데에 있는 것은 因하여 넘겨버리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밀)으로 인도하여 마르게 하며, 가운데가 가득한 것은 안에서 瀉하고, 그 邪氣가 있는 사람은 형체를 적셔 땀이 나게 하고, 그 거죽에 있는 것은 땀을 내어 흩어버리며, 그 빠르고 사나운 것은 눌러서 거두어들이고, 그 實한 것은 깨뜨려서 없앱니다. 그 陰陽을 살펴 부드러움과 강함을 구별하여 陽病엔 陰을 다스리고 陰病엔 陽을 다스립니다. 血과 氣를 안정시켜 각각 그 본분을 지키게 해야 하니, 血이 實하면 마땅히 터주고 (가게 하고) 氣가 虛하면 마땅히 끌어당겨야 (보충해야) 합니다.)⁶⁶⁾

라고 하였다. 이 文章에서는 治療의 大法을 說明하였는데 그 중 病이 거죽에 있는 사람 즉 在皮者는 땀을 내어 흩어버린다고 하였으며, 邪氣가 있는 사람은 형체를 적셔 땀이 나게 한다고 하였다. 땀을 내어 흩어버리는 것은 針이나 藥으로 發汗하는 것을 말하고, 형체를 적셔 땀을 내는 것은 薰法이나 사우나로 땀을 내는 것을 말한다⁶⁷⁾. 따라서 病이 體表에 있을 때 汗法을 쓸을 알 수 있다.

한편 『素問玉機眞藏論』에는

是故風者, 百病之長也, 今風寒客於人, 使人毫毛畢直, 皮膚閉而爲熱, 當是之時, 可汗而發也, 或痺不仁腫痛, 當是之時, 可湯熨及火灸刺而去之.(이러한 까닭으로 風은 百病의 우두머리이다. 지금 風寒이 사람을 침범하여 솜털이 모두 곤두서게 하고 皮膚가 닫혀 發熱하게 하니, 이때에는 가히 땀을

6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6.

6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119-120.

6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5.

67)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142.

내어 發散시킬 수 있다. 혹 저리거나 不仁하거나 붓고 아프면, 이때에는 가히 湯法 葯法 및 火針과 灸刺로 없앨 수 있다.)⁶⁸⁾

라고 하였다. 이로써 邪氣가 體表에 들어와 있어서 腠理가 소통되지 못하고 닫혔을 때 汗法을 써서 땀을 내게 함으로써 다스림을 알 수 있다.

『素問熱論』에서는

帝曰, 治之奈何. 岐伯曰, 治之各通其藏脈, 病日衰已矣. 其未滿三日者, 可汗而已, 其滿三日者, 可泄而已.(黃帝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岐伯이 말씀하시기를 다스려서 그 臟腑와 經脈을 각각 通하게 하면 病이 날로 衰하여서 낫습니다. 그 三日이 되지 않은 것은 發汗시켜서 낫게 할 수 있고, 三日이 넘은 것은 泄瀉시켜서 낫게 할 수 있습니다.)⁶⁹⁾

라고 하였으며, 같은 篇에서

三陽經絡皆受其病, 而未入於藏者, 故可汗而已.(三陽經脈이 모두 病을 받았으나 아직 臟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發汗시켜서 낫게 할 수 있다.)⁷⁰⁾

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傷寒病의 三陰三陽 傳變에서 三日까지, 三陽經과 腑에 病이 있을 때는 汗法으로 치료함을 알 수 있다.

『素問·五常政大論』에서는

是以地有高下, 氣有溫涼, 高者氣寒, 下者氣熱, 故適寒涼者脹之, 溫熱者瘡, 下之則脹已, 汗之則瘡已, 此腠理開閉之常, 太少之異耳.(이러한 까닭으로 地에는 높고 낮음이 있으며 氣에는 따듯하고 서늘

함이 있어서 높은 곳은 氣가 차갑고 낮은 곳은 氣가 뜨겁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갑고 서늘한 곳에 가면 脹病이 되고 따듯하고 더운 곳에 가면 瘡病이 되니, 瀉下시키면 脹病이 낫고 發汗시키면 瘡病이 낫게 됩니다. 이것은 腠理의 開閉에서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差異가 있어서입니다.)⁷¹⁾

라고 하였는데, 이로써 氣가 더워서 생긴 瘡病을 汗法으로 치료함을 알 수 있다.

『素問至真要大論』에서는

大要曰, 君一臣二, 奇之制也. 君二臣四, 偶之制也. 君二臣三, 奇之制也. 君二臣六, 偶之制也. 故曰, 近者奇之, 遠者偶之. 汗者不以奇, 下者不以偶. 補上治上, 制以緩, 補下治下, 制以急. 急則氣味厚, 緩則氣味薄, 適其所, 此之謂也.⁷²⁾

라고 하였으며, 朴贊國은 이를

『大要』에 이르길 “君藥이 하나 臣藥이 둘인 것은 奇制요, 君藥이 둘 臣藥이 넷인 것은 偶制요, 君藥이 둘 臣藥이 셋인 것은 奇制요, 君藥이 둘 臣藥이 여섯인 것은 偶制입니다. 그러므로 病所가 가까운 것은 奇制로 하고 먼 것은 偶制로 하며, 發汗劑는 奇制로 하지 않고 下劑는 偶制로 하지 않으며, 上을 補하고 治療할 때는 緩하게 處方하고 下를 補하고 治療할 때는 急하게 處方하며, 急制는 氣味가 厚하고 緩制는 氣味가 薄하니 그 病所에 약이 이르도록 한다.”고 하니 이를 이릅니다.⁷³⁾

라고 해석하였다. 이 文章에서는 汗法을 쓸 때의 구체적인 方劑 구성법을 볼 수 있으니, 發汗劑는 奇制로 하지 않는다 하였으므로, 發汗劑는 君藥이 둘

6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5.

6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16.

7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16.

7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55.

7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301.

73)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서울 集文堂. 2009. pp.420-421.

臣藥이 넷인 偶制나 혹은 君藥이 둘 臣藥이 여섯인 偶制로 함을 알 수 있다. 王氷⁷⁴⁾은 注에서 奇制는 옛날의 單方을 말하고 偶制는 옛날의 複方을 말한다고 하였으며, 구성 내용으로 볼 때 偶制는 작용이 복잡하고 양이 많은 方藥임을 알 수 있다. 汗法의 적응증은 주로 病이 體表에 있거나 傷寒에 3일을 경과하지 않은 비교적 가벼운 병인데, 지금 작용이 복잡하고 양이 많은 偶制를 쓰라고 한 것은 가벼운 병은 가볍게 다스리고 무거운 병은 무겁게 다스리는 원칙과 맞지 않는 점이 있다. 여기에 대하여는, 原文이 맞지 않으니 ‘汗者不以偶, 下者不以奇’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⁷⁵⁾과 汗法은 陰에서 陽으로 나오는 것이므로 偶制로 하고 下法은 陽에서 陰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奇制로 한다는 주장⁷⁶⁾이 각각 있으니,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靈樞癰疽』에는

發於肩及臑, 名曰癰癰, 其狀赤黑, 急治之, 此令人汗出至足, 不害五藏, 癰發四五日, 暹炳之。(肩部 및 上膊部에 생기면 ‘癰癰’이라 이름 하는데, 그것이 赤黑色으로 나타나면 급히 치료하되 이 사람의 발까지 땀이 나도록 하여 五臟을 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癰이 생긴지 4~5일에는 빨리 훈증하여야 합니다.)⁷⁷⁾

74) 金達鎬, 李鍾馨 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 素問 下. 서울. 醫聖堂. 2001. pp.874-875. “奇, 謂古之單方, 偶, 謂古之複方也.”

75) 金達鎬, 李鍾馨 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 素問 下. 서울. 醫聖堂. 2001. p.876. “王氷: 汗藥, 不以偶方, 氣不足以外發, 泄下藥, 不以奇制, 藥毒攻而致過. 中略. 「類經論治類治有緩急方有奇偶」: 汗者不以偶, 陰沈不能達表也, 下者不以奇, 陽升不能降下也. 舊本云 ‘汗者不以奇, 下者不以偶’, 而王太僕註云 ‘汗藥, 不以偶方, 泄下藥, 不以奇制’, 是註與本文相反矣. 然王註得理, 而本文似誤, 今改從之.”

76) 金達鎬, 李鍾馨 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 素問 下. 서울. 醫聖堂. 2001. p.876. “「素問直解」: 發汗爲陽, 攻下爲陰, 汗則從陰出陽, 地氣升而爲雲爲雨, 故汗者, 以偶不以奇. 下則從陽出陰, 天氣降而能寫能輸, 故下者, 以奇不以偶. 中略. 「靈素節注類篇治法準則總論方制治法」: 奇者陽數, 耦者陰數, 病所近而用奇, 取其陽性直捷也, 病所遠而用耦, 取其陰性遲緩也. 蓋藥先入胃, 然後分行表裏, 故以臟爲近, 經爲遠. 汗不以奇者, 陽性直捷, 未及行于經絡, 而藥氣已消也. 下不以偶者, 藏邪實結, 陰性遲緩, 攻奪無力也.”

라고 하였으며, 같은 篇에

發於臑, 名曰敗疵, 敗疵者, 女子之病也, 灸之, 其病大癰膿, 治之, 其中乃有生肉, 大如赤小豆, 剉蔞翹草根各一升, 以水一斗六升煮之, 竭爲取三升, 則強飲厚衣, 坐於釜上令汗出至足, 已.(脇部에 생기면 ‘敗疵’라 이름 하니, 敗疵는 여자의 병으로 땀을 뜨면 그 병은 癰膿이 커지는데, 이를 치료하면 그 속에 오히려 적소두와 같은 크기의 살이 돋아 납니다. 마름과 연교의 초근 각 1升을 물 1斗6升으로 달여 졸이되 3升을 취하여 억지로 마시고, 두꺼운 옷을 입고 솥 위에 앉아서 땀이 足部까지 흐르게 하면 낫습니다.)⁷⁸⁾

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發汗하여 癰疽를 치료한 것이며 發汗時에 발까지 땀이 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보면, 『黃帝內經』에는 暑邪를 받았거나 熱病을 앓을 때에 汗出하면 病이 낫는다는 敘述이 자주 보이며, 汗法에 대하여는 病이 體表에 있을 때, 風寒의 邪氣가 體表에 있어 腠理가 단혔을 때, 傷寒에 三日을 지나지 않아 病이 三陽의 經脈과 腑에 있으면서 臟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汗法을 응용하는 것이 大法이 된다. 한편 더워서 생긴 瘡病과 癰疽에도 發汗하여 病을 치료한 내용이 있는데, 癰疽의 경우에는 특정한 부위의 癰疽에 응용하였으며 發汗時에 특히 땀이 발까지 나도록 하였다. 發汗劑의 처방 구성에 있어서는 原文에 偶制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體表의 病과 初期病에 응용한다는 大法과 맞지 않는 점이 있으므로 향후 심도 있는 연구를 요한다.

4. 五臟汗 및 五液의 五臟配屬에 대한 敘述

『素問經脈別論』에

77) 洪元植 交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45.

78) 洪元植 交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46.

故曰, 診病之道, 觀人勇怯骨肉皮膚, 能知其情, 以爲診法也. 故飲食飽甚, 汗出於胃. 驚而奪精, 汗出於心. 持重遠行, 汗出於腎. 疾走恐懼, 汗出於肝. 搖體勞苦, 汗出於脾. 故春夏秋冬, 四時陰陽, 生病起於過用, 此爲常也.(그러므로 '病을 진찰하는 방법에 사람의 용감하고 겁이 많음과 骨格과 肌肉, 皮膚를 살펴 능히 그 실정을 파악하여 診法을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심에 배부름이 심하면 땀이 胃에서 나오며, 놀라서 精을 빼앗기면 땀이 心에서 나오며, 무거운 것을 가지고 먼 길을 가면 땀이 腎에서 나오며, 빨리 달리거나 두려워하면 땀이 肝에서 나오며, 몸을 움직여 피로하고 고달프면 땀이 脾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봄여름가을겨울의 四時에 따른 陰陽 변화에서 病이 생기는 것이 지나치게 쓰는 데에서 일어나니, 이것이 기본 법칙이 됩니다.)⁷⁹⁾

라고 하여 五臟汗에 대한 敍述이 보이는데, 여기 보이는 五臟汗은 肉體의으로 혹은 精神의으로 무리하여 津液이 動하여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素問本病論』⁸⁰⁾에서는 하늘의 運氣와 사람의 人氣가 虛한 데에 養生을 잘못하여서, 五臟汗이 나온 후에 精神을 잃어 귀신이 보이고 일찍 죽게 되는 과정을 說明하였다.

한편 『素問宣明五氣』에는

五藏化液, 心爲汗, 肺爲涕, 肝爲淚, 脾爲涎, 腎爲唾, 是謂五液.(五臟이 津液을 化生함에, 心에서는 땀으로 되게 하고 肺에서는 콧물로 되게 하고 肝에서는 눈물로 되게 하고 脾에서는 침으로 되게 하고 腎에서는 가래침으로 되게 하니, 이를 '五液'이라 이른다.)⁸¹⁾

라고 하여, 五液의 五臟 배속이 나온다. 여기서 汗은 心에 배속되는데, 이를 인체 血液循環과 관련하여 中醫學에서는 汗의 機轉을 '心注汗液'으로 說明하는 경우가 많다.李志剛은 「中醫學心說的“現代化”與自汗盜汗機理探析」⁸²⁾에서 서양의학에서 汗液의 배설이 전신 혈액순환 및 혈관확장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로부터 汗이 본래 血에서 생김을 알 수 있으며, 心은 主血脈하므로, 그러므로 心이 汗液의 생성을 주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汗出이 다양한 機轉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心 외에 肝, 脾, 肺, 腎과도 모두 關係를 맺고 있으므로, '心主汗液'의 理論과 汗出證에 대한 辨證施治는 별개로 하여서, 모든 汗出證의 病巢를 心으로 국한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5. 汗出 후 外感 및 汗出이 다 른 病의 誘因이 되는 機轉

7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80.

8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92. “黃帝曰, 人氣不足, 天氣如虛, 人神失守, 神光不聚, 邪鬼干人, 致有夭亡, 可得聞乎. 岐伯曰, 人之五藏, 一藏不足, 又會天虛, 感邪之至也. 人憂愁思慮, 卽傷心. 又或遇少陰司天, 天數不及, 太陰作接間至, 卽謂天虛也, 此卽人氣天氣同虛也. 又遇驚而奪精, 汗出於心, 因而三虛, 神明失守. 心爲君主之官, 神明出焉, 神失守位, 卽神遊上丹田, 在帝太一帝君泥丸君下, 神既失守, 神光不聚, 却遇火不及之歲, 有黑尸鬼見之, 令人暴亡. 人飲食勞倦卽傷脾, 又或遇太陰司天, 天數不及, 卽少陽作接間至, 卽謂之虛也, 此卽人氣虛而天氣虛也. 又遇飲食飽甚, 汗出於胃, 醉飽行房, 汗出於脾, 因而三虛, 脾神失守. 脾爲謀議之官, 智周出焉, 神既失守, 神光失位而不聚也, 却遇土不及之年, 或己年或甲年失守, 或太陰天虛, 青尸鬼見之, 令人卒亡. 汗出於肝, 肝爲將軍之官, 謀慮出焉, 神位失守, 神光不聚, 又遇木不及年, 或丁年不符, 或壬年失守, 或厥陰司天虛也, 有白尸鬼見之, 令人暴亡也.”

8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92.

82) 李志剛, 中醫學心說的“現代化”與自汗盜汗機理探析.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08, 3(9). p.553. “主汗液此功能是指心主汗液的生成, 從西醫學可知, 汗本爲血所化生, 由於心主血脈故心主汗. 例如心氣虛時, 易出現自汗 心陰虛時, 易盜汗. 相反, 如果汗出過多, 則容易傷津耗血, 出現心悸、氣短、乏力等症狀, 嚴重則耗散心氣, 症見大汗淋漓、陽氣亡脫. 津虧血少, 則見汗源不足(主汗液의 기능은 心이 汗液의 生成을 主觀함을 가리킨다. 西洋醫學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汗은 본래 血이 化生하여 만들어지고, 心은 血脈을 主觀하므로, 그러므로 心이 汗을 主觀한다. 예를 들면, 心氣가 虛한 때에는 自汗이 쉽게 출현하고, 心陰이 虛한 때에는 盜汗이 쉽게 된다. 반대로, 만약 汗出이 過多하게 되면, 곧 쉽게 傷津耗血하여心悸, 氣短, 乏力 등의 症狀이 나타나는 데, 심하면 心氣를 耗散하여 大汗淋漓와 陽氣亡脫의 症이 보인다. 津虧血少하면 곧 汗源이 不足하게 된다.”

『黃帝內經』에는 汗出 후에 邪氣를 外感하여 疾病이 발생하는 病理過程이 여러 번 나온다. 『素問生氣通天論』⁸³⁾에는 汗出 후 濕을 받아 痲痺가 되는 病理와, 힘들게 일하여 汗出한 후 風을 받아 痲와 痲가 되는 病理가 나온다. 『素問五藏生成篇』⁸⁴⁾에는 厥疝의 原因이 四肢에 汗出한 후 風을 받은 것이라 하였다. 이 외에 『素問風論』⁸⁵⁾에서는 入房하여 汗出한 후 風을 맞으면 內風이 됨을 말하였고, 『靈樞邪氣藏府病形』⁸⁶⁾과 『靈樞百病始生』⁸⁷⁾에서는 넘어지거나 醉하여 入房한 후 汗出하고 風을 맞으면 脾를 傷하

8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6. “汗出見濕, 乃生痲痺. 勞汗當風, 寒薄爲查皮, 鬱乃痲.(땀이 난데에 濕邪를 만나면 곧 땀띠가 생깁니다. 힘을 써서 땀이 날 때 바람을 쏘이면 寒邪가 펍박하여 작은 여드름이 생기고, 울체되면 이에 큰 여드름이 됩니다.)”

8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40. “黃脈之至也, 大而虛, 有積氣在腹中, 有厥氣, 名曰厥疝, 女子同法, 得之疾使四支汗出當風.(안색이 노랗고 脈이 이르는 것이 크면서도 虛하면 積氣가 腹中에 있는 것으로 厥氣가 있기 때문에 ‘厥疝’이라 이름하며, 여자의 경우에도 병리가 같으니, 사지를 급박하게 부러져 땀이 난데에 風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8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57. “飲酒中風, 則爲漏風. 入房汗出中風, 則爲內風, 新沐中風, 則爲首風, 久風入中, 則爲腸風飧泄, 外在腠理, 則爲泄風.(술을 마시고 바람을 맞으면 漏風이 됩니다. 入房하여 땀이 난데에 바람을 맞으면 內風이 되며, 새로 머리 감고서 바람을 맞으면 首風이 되며, 久風이 가운데로 들어오면 腸風이나 飧泄이 되고 밖으로 腠理에 있으면 泄風이 됩니다.)”

8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6. “有所擊仆, 若醉入房, 汗出當風, 則傷脾. 有所用力舉重, 若入房過度, 汗出浴水, 則傷腎.(두드러 맞거나 넘어져서, 혹은 취하여 入房하여서 땀이 난데에 바람을 맞으면 脾를 상합니다. 힘써 무거운 것을 들거나 혹은 과도하게 入房하여 땀이 난데에 물로 목욕하면 腎을 상합니다.)”

8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87. “黃帝曰, 其生於陰者, 奈何. 岐伯曰, 憂思傷心, 重寒傷肺, 忿怒傷肝, 醉以入房, 汗出當風傷脾, 用力過度, 若入房汗出浴, 則傷腎, 此內外三部之所生病者也.(黃帝께서 말씀하시길, 그 陰分에서 病이 생기는 것은 어떠합니까? 岐伯이 말하길, 근심과 생각은 心을 상하고 거둬진 寒氣는 肺를 상하고 취하여 入房하여 땀이 난데에 바람을 맞으면 脾를 상하고 과도하게 힘을 쓰거나 혹은 入房하여 땀이 난데에 목욕하면 腎을 상하니, 이것이 안과 밖의 三部에서 病을 생하는 바입니다.)”

고, 과도하게 힘을 쓰거나 入房하여 汗出한 후 沐浴하면 腎을 傷한다고 하였다. 『靈樞邪氣藏府病形』⁸⁸⁾에서는 面部는 諸陽之會로 陽氣가 盛한 곳이지만, 虛한 때나 막 힘을 썼을 때 혹은 음식을 먹어 汗出한 후에 邪氣를 받을 수 있는데, 邪氣를 받은 부위에 분포한 經脈을 따라 邪氣가 들어간다고 하였다.

이렇듯 汗出이 될 때에는 腠理가 열리므로 體外의 邪氣가 열린 腠理를 통하여 人體에 쉽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러므로 汗出 자체는 病證이 아닌데도 땀이 날 때에 腠理가 열려 外邪가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다른 病이 발생하는 誘因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등산이나 운동 후 덥고 땀이 난다고 해서 옷을 벗으면 땀이 식은 후 추워지면서 감기에 걸린다. 아이들이 자면서 땀을 흘리면 어머니들이 옷을 갈아입혀 다시 재우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이다.

한편 『素問八正神明論篇』에서는

虛邪者, 八正之虛邪氣也, 正邪者, 身形若用力, 汗出, 腠理開, 逢虛風, 其中人也微, 故莫知其情, 莫見其形.⁸⁹⁾

라고 하였는데, 이를 朴贊國은

虛邪라는 것은 八正의 虛로 인한 邪氣이고, 正邪라는 것은 身形이 혹 힘을 써서 땀이 나고 腠理가 열려 虛風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맞음이 미미하기 때문에, 故로 그 實定을 알지 못하게 하고 그 形象을 드러내 주지도 않습니다.⁹⁰⁾

8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6. “岐伯曰, 諸陽之會, 皆在於面. 中人也方乘虛時及新用力, 若飲食汗出, 腠理開而中於邪. 中於面, 則下陽明. 中於項, 則下太陽. 中於頰, 則下少陽. 其中於膺背兩脇, 亦中其經.(岐伯이 말하기를, 모든 陽氣가 모이는 곳은 다 얼굴에 있습니다. 虛한 때를 틈타는 경우 및 막 힘을 썼거나 혹은 음식을 먹어서 땀이 나 腠理가 열린 경우에 사람이 邪氣에 적중하게 됩니다. 얼굴에 적중하면 陽明經으로 내려가고 뒷목에 적중하면 太陽經으로 내려가고 뺨에 적중하면 少陽經으로 내려갑니다. 가슴과 등, 양 옆구리에 적중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經脈으로 들어갑니다.)”

8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p.100-101.

90)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라고 해석하였다. 이 文章은 원래 人體를 侵入할만한 威力을 가지지 못하는 邪氣가 汗出하여 腠理가 열린 상황 때문에 病을 일으킴을 말해준다. 이는 ‘汗出後 外感’의 病理에서 外感보다 汗出에 더욱 무게중심을 두는 것으로, 正邪는 人體의 防禦能力이 쇠약해져서 邪氣로 作用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靈樞·賊風』⁹¹⁾에는 賊風邪氣의 侵入을 전혀 받지 않았는데도 濕氣, 惡血, 腠理閉而不通, 有熱 등의 內因이 있을 때 汗出이 契機가 되어 疾病이 發하는 病理가 나온다. 이는 內因과 汗出로 誘入된 邪氣가 함께 病을 일으키는 內外合邪의 發病機轉이긴 하나, 여기서도 역시 內因과 疾病을 發하는 契機인 汗出이 중심이 된다. 『素問·瘧論篇』⁹²⁾에 나오는 瘧疾의 寒熱發

作 病機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內因과 汗出과 汗出로 들어 온 邪氣가 人體 營衛氣의 運行과 얽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보면, 正常的인 汗이라 하더라도 汗出時 腠理가 열림으로 인하여 주의하지 않으면 外感을 誘發하는 病因이 될 수 있다. 또한 힘을 쓴 후에 汗出하면 밖에 뚜렷한 邪氣가 없어도 汗出 자체가 人體 방어력을 약하게 하는 素因이 될 수 있으며, 內因이 있는 경우에도 汗出이 契機가 되어 疾病이 發病한다.

6. 汗出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敘述

『黃帝內經』에는 汗出하지 않는 여러 경우에 대한 敘述이 보인다.

먼저 『素問·生氣通天論』⁹³⁾의 ‘魄汗未盡, 形弱而氣燦, 穴俞以閉, 發爲風癩.’과 『素問·金匱真言論』⁹⁴⁾의 ‘夏暑汗不出者, 秋成風癩. 此平人脈法也.’는 땀이 충분히 나지 않아서 病이 되는 경우를 말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⁹⁵⁾의 ‘陽勝則身熱, 腠理閉, 喘麤爲之俛仰, 汗不出而熱, 齒乾以煩冤腹滿, 死, 能冬不能夏.’는 陽이 勝하여 發熱하면 汗이 나지 않음을 설명한 것으로 溫病의 機轉으로 볼 수 있다. 『素問·刺瘧篇』⁹⁶⁾의 ‘溫瘧汗不出, 爲五十九刺.’와 『靈樞·四時氣』⁹⁷⁾의 ‘溫瘧汗不出, 爲五十九疔.’ 및 『靈樞·寒熱病』⁹⁸⁾의 ‘皮寒熱者, 不可附席, 毛髮焦, 鼻槁腊, 不得汗, 取三陽之絡, 以補手太陰. 肌寒熱者, 肌痛, 毛髮焦而脣槁腊, 不得汗, 取三陽於下, 以去其血者, 補足太陰, 以

서울. 集文堂. 2005. p.511.

9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253. “黃帝曰, 夫子言賊風邪氣之傷人也, 令人病焉, 今有不離屏蔽, 不出室穴之中, 卒然病者, 非不離賊風邪氣, 其故何也. 岐伯曰, 此皆嘗有所傷於濕氣, 藏於血脈之中, 分肉之間, 久留而不去. 若有所墮墜, 惡血在內而不去. 卒然喜怒不節, 飲食不適, 寒溫不時, 腠理閉而不通, 其開而遇風寒, 則血氣凝結, 與故邪相襲, 則爲寒痺, 其有熱則汗出, 汗出則受風, 雖不遇賊風邪氣, 必有因加而發焉(黃帝께서 말씀하시길, 선생님께서 ‘賊風邪氣가 사람을 상하게 하므로 사람이 병든다.’고 말씀하셨습시다만, 지금 병풍을 떠나지 않고 실내에서 나오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病인 경우가 있는 것은 賊風邪氣를 피하지 않아서가 아닐 것이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岐伯이 말하기를, 이것은 모두 일찍이 濕氣에 상하여 血脈中이나 分肉間에 오래 머물러 제거되지 않은 바가 있거나, 혹은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惡血이 안에 있으면서 제거되지 않은 바가 있거나, 갑자기 기쁘고 노함이 적절치 못하거나 먹고 마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거나 춥고 따듯한 것이 때에 맞지 않으므로 腠理가 막혀 통하지 않다가 그 열려서 風寒邪를 만남에는 血과 氣가 응결되어 예전의 邪氣와 더불어 서로 습격하여 곧 寒痺가 되니, 그 熱이 있으면 곧 땀이 나고 땀이 나면 곧 바람을 받아서 비록 賊風邪氣를 만나지 않더라도 반드시 원인이 더해짐을 두어 발병하게 됩니다.)”

92) 여름에 暑邪에 傷하여 熱氣가 體內에 머무름으로써 汗孔을 느슨하게 해서 가을에 汗出하고 風이나 水氣 등의 外邪가 침입하여 瘧疾이 發作한다. 이 때 여름에 들어온 熱氣는 榮氣와 함께 있고, 가을에 汗出로 들어 온 사기는 衛氣와 함께 있다.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30. “此皆得之夏傷於暑, 熱氣盛, 藏於皮膚之內, 腸胃之外, 此榮氣之所舍也. 此令人汗空疎, 腠理開, 因得秋氣, 汗出遇風, 及得之以浴, 水氣舍於皮膚之內, 與衛氣并居. 衛氣者, 晝日行於陽, 夜行於陰, 此氣得陽而外出, 得陰而內薄, 內外相薄, 是以日作.”

93)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6.

94)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0.

95)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24.

96)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37.

97)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24.

98)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30.

出汗.'도 같은 이유로 汗出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靈樞熱病』⁹⁹⁾의 '熱病, 脈尙盛躁而不得汗者, 此陽脈之極也, 死.'와 '熱病不可刺者有九, 一曰, 汗不出, 大額發赤曠者, 死.' 및 '五曰, 汗不出, 嘔下血者, 死.', '七曰, 欬而衄, 汗不出, 出不至足者, 死.'는 모두 熱病에 汗出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 것으로 陽이 勝하고 陰이 不足한 原因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靈樞刺節眞邪』¹⁰⁰⁾의 '是陽氣有餘, 而陰氣不足, 陰氣不足則內熱, 陽氣有餘則外熱, 內熱相搏, 熱於懷炭, 外畏綿帛近, 不可近身, 又不可近席, 腠理閉塞, 則汗不出, 舌焦唇槁, 腊乾噤燥, 飲食不讓美惡.'의 경우는 陰氣不足하고 陽氣有餘한 데에 腠理까지 막혀 汗出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靈樞營衛生會』¹⁰¹⁾의 '營衛者, 精氣也, 血者, 神氣也, 故血之與氣, 異名同類焉. 故奪血者無汗, 奪汗者無血, 故人生有兩死, 而無兩生.'은 血奪하면 汗出하지 못함을 說明하고 있다.

이상 『黃帝內經』에 보이는 汗이 나오지 않는 경우를 종합하여 보면, 汗을 충분히 흘리지 못하여 病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溫病의 機轉과 같이 熱病에 陽氣가 지나치고 陰氣가 부족하여 汗出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또한 血과 汗은 同類이기 때문에 奪血者는 汗出하지 못함을 說明하고 있다.

III. 結論

이상 『黃帝內經』에 보이는 汗관련 敍述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魄汗, 絕汗, 灌汗, 白汗, 寢汗, 吳汗, 腎汗, 漉汗, 寒汗 등으로 汗에 이름을 붙여 그 特性을 나타낸 용어가 자주 보인다. 그러나 현재 韓醫學에서 汗에 관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自汗이나 盜汗의 용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汗出偏沮, 汗出尻陰股膝, 頸多汗惡風, 頭面多汗惡風, 頭以下汗出不可止, 令汗出至足,

漉漉然汗出, 汗出如浴, 汗出溱溱, 汗大泄, 漉漉之汗, 汗濡玄府, 汗注不休, 汗注煩心, 汗汗然, 汗且自出, 熱去汗稀 등으로 汗이 나는 樣相을 다양하게 敍述하였다. 이를 크게 汗出 부위에 대한 것과 汗出 모양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水穀에서 만들어진 津液으로부터 날씨가 덥거나, 매운 것을 먹거나, 힘든 일을 하거나, 濕邪를 만나 汗이 나는 原理에 대한 자세한 說明이 있다.

3. 內外實熱로 인한 高熱이 날 때에도 津液을 補함으로써 發汗하여 熱이 떨어지게 하는 原理에 대한 說明이 있다. 이외에 汗出하여 熱病 및 기타 疾病이 나올 수 있음과, 發汗法에 관한 다양한 敍述이 보인다.

4. 五臟汗 및 五液의 五臟配屬에 대한 敍述이 있다.

5. 汗出 후에 六氣 및 水를 外感하는 病理科에 자주 보이며, 汗出이 다른 病을 誘發하는 機轉에 대한 자세한 說明이 보인다.

6. 汗이 충분히 나지 않는 것이 病의 原因이 되는 것에 대한 說明 및 汗이 나야 할 상황에서 汗이 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다양한 敍述이 보인다.

參考文獻

<논문>

1. 金翰成, 洪茂昌. 黃帝內經에서의 汗에 대한 考察. 東醫生理學會誌. 7(1). 1992. pp.163-172.
2. 牛菲. 《內經》汗理論的思考. 雲南中醫學院學報. 2008. 9(4). pp.10-12.
3. 李志剛. 中醫學心說的“現代化”與自汗盜汗機理探析. 世界中西醫結合雜誌. 2008. 3(9). p.553.
4. 程紹民, 喻松仁. 淺析《內經》從臟腑論汗. 上海中醫藥雜誌. 2008. 42(11). pp.62-63.
5. 李海英. 《內經》關於汗出的論述. 河北中醫. 2008. 30(2). p.188.
6. 牛菲. 解讀《內經》之“汗”. 吉林中醫藥. 2008. 28(7). pp.477-479.

<단행본>

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1. p.16, 20, 24, 25, 31, 40, 54, 58, 66, 80, 86, 89, 92, 100, 101, 109,

9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39.

100)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15.

101)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120.

116, 119, 120, 130, 132, 137, 146, 153, 157,
158, 163, 174, 195, 213, 247, 255, 274, 276,
292, 300, 301. pp.100-101, 119-120,
157-158.

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36, 38, 73, 83, 120, 124, 130, 138, 139, 168, 183, 210, 244, 246, 253, 275, 287, 315, 316, 345, 346.
3. 洪元植 監修.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集文堂. 2005. p.44, 129, 142, 322, 441, 511, 887, 954.
4. 朴贊國 譯注.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서울 集文堂. 2009. pp.420-421.
5. 金達鎬, 李鍾馨 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 素問 下. 서울. 醫聖堂. 2001. p.876.
6. 윤창열,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周珉출판사. 2007. p494.

<사전류>

1. 東洋醫學大辭典 編纂委員會. 東洋醫學大辭典 1.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9. p.525.
2. 東洋醫學大辭典 編纂委員會. 東洋醫學大辭典 4.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1999. p.63.